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와 성격

오 욱 진 *

-
- I. 머리말
 - II.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
 - 1. 문헌상의 검토
 - 2. 고고학상의 검토
 - III. 진출 성격
 - IV. 맺음말
-

I. 머리말

백제가 마한지역에 진출하는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한다. 비단 문헌과 고고자료의 해석에 있어 인식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헌에서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백제 강역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고고학에서는 마한의 분묘 및 유물상이 백제의 물질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문헌과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백제의 중원지역 진

* 충북대학교 박물관

출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원지역¹⁾을 선정한 이유는 비교적 백제 초기에 이 지역에 대한 전투기사가 집중되어 있고, 영역화의 주요 표지 중 하나인 성곽의 분포가 두드러져 백제의 마한 세력권에 대한 영역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역 기사를 통해 백제가 중원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백제 강역의 南限에 해당되는 熊川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따라서 웅천의 지리적 범위와 백제 南邊에서 발생한 전투 기사 등을 검토하여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전투기사 뿐만 아니라 성곽의 축조, 마한 여러 집단의 분묘 변화상과 백제계 유물의 등장 등이 있다.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백제 성곽을 비롯해 마한계 묘제와 유물양상이 백제계 물질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진출 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원지역과 주변 거점 지역 간 고고자료의 양상을 비교하여 백제의 영역화 모습이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

1. 문헌상의 검토

『三國史記』에는 백제 초기의 영역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온조왕 대

- 1)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다. 좁게는 중원경의 치소가 있었던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신형식, 1996.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중원문화권의 새로운 인식」 『중원문화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넓게는 충주·청주를 축으로 하는 충청지역과 이와 인접한 경기와 강원남부, 경북 북부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김현길, 1995. 「中原地域의 歷史의 背景」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또한 현재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지역으로 설정하기도 한다(장준식, 2011. 「생산유적으로 본 중원」 『중원의 생산유적』(충주대학교 박물관.).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터 일찍이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백제의 초기 강역을 알려주는 내용이 어느 시기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여 온조왕 13년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³⁾ 온조왕 대의 영역확장 기사는 후대의 사실이 온조왕 대에 부회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3세기 경 고이왕 또는 4세기 경 근초고왕 대의 사실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⁴⁾ 또한 『三國史記』 온조왕 대의 기사 중에서 마한 공격 및 멸망과정에 대한 일련의 기사가 『日本書紀』 신공기에 보이는 근초고왕의 마한 공격 및 멸망 기사보다 360년 앞선 점에 주목하여 백제본기의 사실이 360년 소급시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⁵⁾ 이처럼 백제 초기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후대의 사실을 부회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백제의 건국시기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건국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동안 오늘날의 한반도 중부지역 일대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영역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이처럼 백제 초기에 나타나는 강역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시기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백제가 중원지역에 진출하는 시기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남쪽 경계로 언급한 ‘熊川’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공간적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백제 초기 강역이 어느 시기의 영역이라는 문제와 강역에서 언급된 웅천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백제가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진출, 더 나아가 중원지역에 진출한 시공간적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제는 북쪽과 동쪽으로 낙랑과 말갈이 인접해 있었고, 남쪽에는 마

2)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定疆北至涇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3) 천관우,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일지사) 120~121쪽.

4)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476~477쪽; 양기석, 2005. 「漢城百濟의 淸州地域 支配」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한국학중앙연구원), 225~232쪽.

5) G.K.ledyard, 1975. "Gallop along with the horserider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1. No.2, 49~50쪽.

한(목지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성백제의 중심지에서 바라볼 때 중원지역은 백제의 남방에 해당된다. 백제와 마한과의 갈등관계는 백제가 강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백제가 남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료를 통해 당시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① 가을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神籠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三國史記』 卷23, 溫祚王 10年)

② 8월 사신을 마한에 보내어 도움을 옮길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淇河에 이르고, 남쪽은 熊川을 경계로 삼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닿았다. (『三國史記』 卷23, 溫祚王 13年)

③ 겨울 10월에 말갈이 갑작스레 쳐들어왔다. 이에 왕은 군사를 이끌고 七重河에서 맞아 싸워서 추장인 素牟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 버렸다. (『三國史記』 卷23, 溫祚王 18年)

④ 가을 7월에 왕이 熊川柵을 세우자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어 책망하기를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 와서 밭 디딜 만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의 1백 리의 땅을 떼어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 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니 그것이 의리에 합당한 일인가?” 왕이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목책을 헐었다. (『三國史記』 卷23, 溫祚王 24年)

⑤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고,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은 둘이었다. 日官이 말하였다.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께서 우뚝 일어날 조짐이요,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들인 것은 대왕께서 이웃 나라를 병합할 징조입니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辰韓과 마한을 병탄하려고 마음을 가졌다.(『三國史記』 卷23, 濫祚王 25年)

⑥ 가을 7월에 왕이 말하였다. “마한이 점점 쇠약해지고 뒷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갈리어 그 형세가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일 남에게 병합된다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격(唇亡齒寒)이 될것이니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다 먼저 [마한을] 병합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편이 더 낫겠다.”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걸으로는 사냥한다고 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國邑을 병합하였다. 그러나 圓山城과 錦峴城의 두 성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三國史記』 卷23, 濫祚王 26年)

⑦ 여름 4월에 두 성이 항복하자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은 드디어 멸망하였다.(『三國史記』 卷23, 濫祚王 27年)

위의 내용은 모두 온조왕 대의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후대의 사실이 온조왕 대에 부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강역이 확정되는 기사와 마한과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는 대체로 3세기 경의 고이왕대의 사실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⁶⁾

A-①~③의 내용은 백제 초기 마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A-④의 내용은 백제가 熊川柵을 설치하면서 마한과 갈등관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⑤~⑦은 이후 마한지역에 대한 백제의 공략과 마한의 멸망과정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마한에 대한 영역화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웅천책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웅천책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경기도 안성의 安城川설과 충남 공주

6) 이병도, 1977. 앞 책, 479쪽.

의 錦江설로 이해하고 있다. 안성천설은 熊川을 ‘곰내’로 읽고 마한의 맹주국인 目支國이 천안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또 안성천 유역인 孔道邑의 熊川橋가 속칭 ‘고무다리’로 불리우고 있는 점, 안성천 하류에 있는 평택의 軍勿津(昆池津)이 軍門里津(군문이 나무)으로 불리우고 있는 점과,⁷⁾ 백제 초기의 영역을 고고 자료의 분포를 통해서 이해할 때에 대체로 안성천을 경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 공주의 금강설은 웅천이라는 명칭이 대개 충남 공주 지역을 흐르는 금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충남 공주로 비정하고 있다.⁸⁾

웅천책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熊川의 지리적 범위와 柵의 성격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熊川이 자연지리 명칭으로 사용된 예는 위에서 살펴본 A-② 내용을 비롯하여, 『三國史記』와 『高麗史』에서 확인된다.

B-① 四瀆은, 동쪽은 吐只河 또는 槩浦라고도 하였다. 退火郡, 남쪽은 黃山河 歙良州, 서쪽은 熊川河 熊川州, 북쪽은 漢山河 漢山州였다.(『三國史記』卷32, 雜志 祭祀 中祀)

② 燕岐縣. 본래 백제의 頭仍只縣으로 신라 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燕山郡의 嶺縣으로 삼았고 顯宗 9년에 來屬하였으며 明宗 2년에 監務를 두었다가 뒤에 木川監務가 와서 겸임하게 하였다. 元帥山【忠烈王 때 韓希愈와 金忻 등이 縣 남쪽의 正左山 아래에서 哈丹賊을 크게 패배시켰으므로 세속에서 군사를 주둔시킨 곳을 이름하여 元帥山이라고 하였다.】이 있고, 熊津【즉 신라 서쪽의 개천 熊川河로 中祀에 실려있다.】이 있다.(『高麗史』卷56, 志 地理 楊廣道 淸州牧)

A-②는 백제의 강역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熊川이 처음으로 확인되며, 백제의 南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B-①의 내용을 통해서 熊

7) 이병도, 1976. 앞 책, 247~248쪽.

8) 천관우, 1976. 앞 책, 130쪽.

津이 熊川河로, B-②에서 熊川河가 지금의 공주 뿐만 아니라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합류하는 연기지역에서도 熊川河로 불리고 있다. 이는 자연지리 명칭으로 사용된 熊川이 공주 일대 뿐만 아니라 공주의 상류지역까지 포함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하천 명칭은 하천 유역과 지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중앙이나 지방권력에 의해서 획일적인 하천 명칭이 부여된다. 따라서 여러 유역의 하천 지명 중 행정적으로 중심성이 강한 촌락과 도시 부근의 하천 지명이 하천 상·하류의 전 유역으로 그 지칭 범위, 즉 지명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⁹⁾ 웅천의 범위를 공주 일대의 금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성백제기 한군현 및 마한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柵으로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는 A-④의 내용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다.

C-① 가을 7월에 馬首城을 쌓고 瓶山柵을 세웠다. 樂浪太守가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지난날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집안과 같았는데, 지금 우리 영토에 다가와 성과 목책을 만들고 세우는 것은 혹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인가? 만일 옛날의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깨뜨려 버린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하건대 한 번에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자.” 이에 왕이 회답하였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몇몇한 도리인데, 어찌 감히 이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리겠는가? 마땅히 執事께서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小國)도 또한 이에 대응할 뿐이다.” 이로 인하여 낙랑과 우호를 잃게 되었다.(『三國史記』 卷23, 溫祚王 8年)

9) 김순배, 2009. 「하천 지명의 영역과 영역화」 『지명학』 15(한국지명학회), 27~28쪽.

② 가을 7월에 禿山柵과 狗川柵의 두 목적을 세워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三國史記』 卷23, 溫祚王 11年)

한성백제기 한군현 및 마한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柵으로는 熊川柵을 비롯하여 瓶山柵, 禿山柵, 狗川柵 등이 확인되고 있다. 柵은 일반적으로 목적을 의미한다. 보통 城은 군사적인 기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柵은 위의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영역 확장이나 주요 길목을 차단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등 군사적인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柵의 설치 목적이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거나 이를 통해서 영역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웅천책의 지리적 위치는 안성천이나 공주 일대의 금강유역으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柵의 기능을 통해 봤을 때, 주요교통로에 입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제의 전투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세기 이전의 전투기사를 살펴보면 한군현과 말갈, 신라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찍이 확인되는 백제와 한군현·말갈과의 전투는 대부분 방어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으나, 이후 점차 한군현·말갈과의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대신 신라와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즉 이전의 전투의 양상이 백제가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신라와의 관계에서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백제의 적극적인 영역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三國史記』에서 확인되는 4세기까지 백제의 전투 기사 중에 백제의 南邊에서 발생한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내용이다.¹⁰⁾

10) 백제와 신라가 일찍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성백제가 중서부지역에 진출하는 시기는 3세기 중엽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백제와 신라 양국이 중부 내륙지역에 진출하면서 대립하던 시기에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제지세력 집단들간의 대

표 1. 4세기 이전 백제·신라 전투기사

연번	시 기	위 치	병 력	공수	승패	비 고
1	다루왕 36년 (A.D. 63)	娘子谷城		-	-	영토개척, 신라와 교섭하려 했으나 실패
2	다루왕 37년 (A.D. 64)	蛙山城 → 狗壤城	신라: 기병 2천	공	패	
3	다루왕 39년 (A.D. 66)	蛙山城		공	승	
4	다루왕 39년 (A.D. 66)	蛙山城	백제: 2백	수	패	와산성 수비병력 2백
5	다루왕 43년 (A.D. 70)	?		공	-	
6	다루왕 47년 (A.D. 74)	?		공	-	
7	다루왕 48년 (A.D. 75)	蛙山城		공	승	
8	다루왕 49년 (A.D. 76)	蛙山城	백제: 2백 (주둔병)	수	패	와산성 주둔병 200명 진멸
9	기루왕 9년 (A.D. 85)	신라변경		공	-	
10	개루왕 38년 (A.D. 165)	?		수	-	길선의 모반과 관련
11	초고왕 2년 (A.D. 167)	신라 서쪽 변경 2성		공	승	남녀 1천명을 포획
12	초고왕 2년 (A.D. 167)	백제의 동쪽 여러성-현수	신라: 2만, 기병 8천	수	패	앞서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고 화해(乞和)
13	초고왕 5년 (A.D. 170)	신라 변경		공	-	
14	초고왕 23년 (A.D. 188)	母山城		공	-	

립 사실이 후대 어느 시기에 나제 양국의 초기역사에 일괄 처리되어 수록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이종욱, 1982. 『신라국가형성사연구』(일조각), 110쪽), 신라의 초기 전투기사는 경주세력의 사실이 아니라 진한계 석씨세력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경험을 신라사에 일괄 수록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천관우,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한국사학회), 41~47쪽).

15	초고왕 24년 (A.D. 189)	狗壤		?	패	
16	초고왕 25년 (A.D. 190)	圓山郷 → 缶谷城	신라: 기마5백	공	승	
17	초고왕 34년 (A.D. 199)	신라변경		공	-	
18	초고왕 39년 (A.D. 204)	腰車城		공	승	
19	초고왕 39년 (A.D. 204)	沙峴城	신라: 6부 병력	수	-	
20	구수왕 5년 (A.D. 218)	獐山城		공	패	
21	구수왕 9년 (A.D. 222)	牛頭鎮	신라: 5천	공	승	
22	구수왕 11년 (A.D. 224)	烽山 아래		수	패	살획한 자가 천여급
23	고이왕 7년 (A.D. 240)	신라 서번		공	-	
24	고이왕 22년 (A.D. 255)	槐谷 서쪽		공	승	
25	고이왕 22년 (A.D. 255)	烽山城		공	-	
26	고이왕 33년 (A.D. 266)	烽山城	신라: 2백	공	패	
27	고이왕 39년 (A.D. 272)	?		공	-	
28	고이왕 45년 (A.D. 278)	槐谷城		공	-	
29	고이왕 50년 (A.D. 283)	신라 변경		공	-	

전투가 일어난 娘子谷城은 충북 청주시 일대로 추정되며,¹¹⁾ 蛙山城은 충북 보은,¹²⁾ 狗壤城은 충북 옥천 지방,¹³⁾ 槐谷城은 충북 괴산¹⁴⁾으

11) 『三國史記』 卷37, 雜志 地理 百濟 熊川州. “西原(一云娘臂城 一云娘子谷)”

12) 천관우, 1976. 앞 글, 45~47쪽.

13) 이병도, 1976. 앞 책, 361쪽. 구양성을 충북 괴산지방에 비정하는 견해(천관우, 1976. 앞 글, 45~47쪽)도 있다.

14) 이병도, 1977. 앞 책, 368쪽.

로 비정된다. 백제와 신라간 전투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전장이 대체로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백제가 일찍부터 이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 백제의 남쪽에 해당되는 주요 공략지역이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웅천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해 봤을 때, 웅천책의 위치는 공주 일대의 금강보다 상류지역으로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백제와 마한이 충돌할 수 있는 주요 결절점은 청주 일대로 추정된다.¹⁵⁾ 청주는 증평-진천-음성 등 남-북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교통로에 해당되며, 소백산맥의 화령과 추풍령 등을 통해 영남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거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백제는 대외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마한이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중원지역에 진출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략적인 시기는 고이왕대 이후인 3세기 중엽부터 4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살펴볼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고고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고고학상의 검토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전투기사 뿐만 아니라 성곽의 축조, 마한 여러 집단의 분묘 변화상과 백제계 유물의 등장 등을 통해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영역화의 주요 표지 중 하나인 성곽은 초축시기와 축조집단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군사시설의 특성상 점유집단이 바뀌어도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축조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곽의 축조는 영역화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곽의 축조

15) 통일신라 때 지방편제에서 공주를 중심으로 熊川州가 설치되는데, 동쪽으로 西原小京(청주)까지 웅천주에 포함되는 점도 주목된다.

는 많은 공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力役의 일종으로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곽의 초축집단과 시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구조적인 특징과 출토되는 유물상을 통해서 단편적이거나 추정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백제토기¹⁶⁾의 출토양상을 통해서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 성곽은 4세기 대를 중심으로 축조·경영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부내륙교통로를 따라서 확인된 백제 성곽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4세기 중원지역과 그 일대 백제 성곽¹⁷⁾

연번	유적명	위 치	주변 하천	형식	규모(m)		축조 재료	비 고
1	설봉산성	이천 사음동	신둔천, 북하천	태피식	1,079		석축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2	효양산성	이천 부발읍 산촌리	북하천	태피식 포곡식	1,500		토축	
3	설성산성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청미천, 양화천	포곡식	1,095		석축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4	장미산성	충주 가금면 장천리	남한강, 한포천	포곡식	2,940		석축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5	탄금대토성	충주 철금동	남한강, 달천	평산성	420		토축	
6	망이산성	안성 일죽면 급사리	청미천, 원천	태피식 포곡식	내 350 외 2,080	토축 석축	내성	
7	대모산성	진천 진천읍 성석리	미호천, 백곡천	평산성	내 416 외 650	토석 혼축		
8	이성산성	증평 증평읍 미암리	미호천	태피식	북 429 남 1,411	토축		
9	정북동토성	청주 상당구 정북동	미호천, 무심천	평지성	675		토축	

16) 백제의 중심지였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확인되는 백제중앙양식의 주요 기종으로는 흑색마연토기, 삼죽기, 고배, 기대, 직구단경호, 직구광견호, 뚜껑 등이 있다.

17) 오강식, 2006. 『漢城 百濟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1를 수정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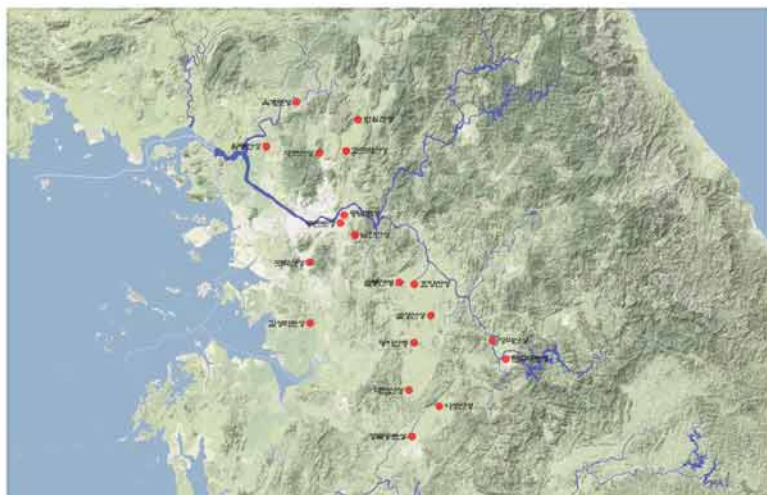


그림 1. 4세기대 백제의 주요 성곽과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성곽

이천 설봉산성¹⁸⁾은 설봉산의 정상부(해발 394.3m)와 북동쪽으로 연결되는 봉우리를 연결하여 축조된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이천시는 물론 멀리 장호원과 양평·안성 등의 주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며, 북쪽으로 광주, 서쪽으로 용인·안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설봉산성에서는 삼족기, 어깨에 파상문이 시문된 흑색마면직구단경호를 비롯하여 망이산성 출토 고배처럼 배신에 대갈을 이용하여 돌려깎아 정면한 고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천 효양산성¹⁹⁾은 효양산(해발 188m)의 정상부와 남쪽으로 펼쳐진 대지를 감싸고 축조된 토축산성이다. 주변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방에 대한 조망이 양호하다. 1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 주거지 1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단경호와 심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천 설성산성²⁰⁾은 장호원과 설성면 사이에 위치한 설성산(해발

1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이천 설봉산성 4·5·6차 발굴조사 보고서』.

19) 호암미술관, 1995. 『利川 孝養山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290m)의 정상부와 계곡부를 둘러싸고 축조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주변으로 높은 산이 없고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나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조망이 잘된다. 이천과 여주의 평야를 비롯해 죽산-음성-충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요충지에 해당된다. 산성 내 가장 넓은 평탄지가 있는 건물지와 그 주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3기의 백제 시대 수혈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기대와 삼죽기, 고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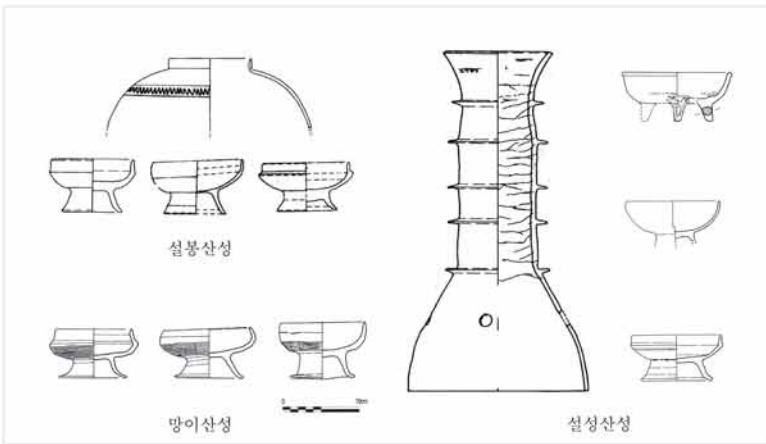


그림 2. 4세기대 중부내륙교통로상의 백제 성곽 출토유물

충주 장미산성²¹⁾은 충주의 북서쪽 남한강변에 위치한 장미산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장미산성 정상에서 남쪽으로 남한강 본류와 달천이 합류되는 탄금대가 조망되는 등 남한강의 수상교통로와 더불어 경기도 여주를 통해 한강 하류로 연결되는 육상교통로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출토유물로는 원저단경호 등이

2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4.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이천 설성산성 4차 발굴조사 보고서』.

21)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2. 『中原 薔薇山城』;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薔薇山城』;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忠州 薔薇山城 - 1차 발굴조사 보고서 -』.

있다.

충주 탄금대토성²²⁾은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남한강과 남한강 최대 지류인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탄금대토성에서 출토된 토기편 중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에 대한 편년은 대체로 4세기 대에 집중되고 있다. 성내와 성벽 판축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제토기 일색이나 이후 충주지역에 진출한 고구려와 신라토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탄금대토성은 백제에 의해 운영되다가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진출한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안성 망이산성²³⁾은 경기도 안성·이천과 충북 음성에 걸쳐 있는 망이산(해발 472m) 정상부에 위치한다. 차령산맥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며, 진천분지의 북쪽 끝에 해당된다. 남쪽으로 미호천 수계를 따라서 진천·청주 등을 거쳐 금강 중상류로 이어지는 중부내륙교통로의 중요한 위치에 해당된다. 망이산성은 내성과 외성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중 토축인 테외식 형태의 내성이 먼저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성의 발굴조사에서 고배 등의 토기가 확인되었다.

진천 대모산성²⁴⁾은 진천분지의 남쪽의 낮은 구릉지에 조성된 토축 평산성으로 미호천 수계를 따라 청주와 진천·음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부내륙교통로의 길목에 해당된다. 승석문토기를 비롯해 한성백제기 유물이 주로 출토되었다.

중평 이성산성²⁵⁾은 이성산(해발 259.1m) 정상에 축조된 토성으로 미호천을 따라 넓게 펼쳐진 미호평야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두타산을 넘어 진천으로 통하는 고갯길과, 북쪽의 백마산과 동쪽의 보광산을 끼고 음성과 충주·괴산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현재 조사 중인 북성에서는 원삼국시대 전

2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忠州 彈琴臺土城 I』.

2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陰城 望夷山城 I』.

24)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6.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25)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1997. 『曾坪 二城山城』;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曾坪 二城山城 I』.

통의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 위에 성벽이 조영되어 있어 상호 중복 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구장경호 등 전형적인 백제 중앙 양식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⁶⁾

청주 정북동토성²⁷⁾은 청주시의 북쪽에 해당되며, 미호천을 따라 넓게 펼쳐진 충적평야에 위치한다.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까치내의 동쪽 연안의 평지에 축조된 방형의 토성이다. 정북동토성을 중심으로 동북쪽으로는 증평 이성산성이, 남쪽으로 부모산성이 조망되며 서쪽으로 청주에서 목천·천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해당된다. 성 내에서 한성백제기의 특징적이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입지나 축조방법 등에서 풍납토성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찍이 백제의 성곽으로 주목받았다.

이 시기 백제 성곽의 분포를 살펴보면 4세기 이후 경기지역의 동남부와 남한강 일대, 미호천 등 중원 일대에서 성곽이 밀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주요 교통로 상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원지역의 중부내륙교통로를 중심으로 성곽의 축조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일대에 대한 백제의 진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기와 지배 강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곽과 더불어 주구토광묘와 분구묘 등 전통적인 마한의 묘제에서 나타나는 변화상이나 출토유물에서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제의 영역화를 이해할 수 있다. 금강 유역의 주구토광묘와 분구묘는 2세기 후반~5세기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다가 소멸한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시기별 분구묘의 소멸이나 분구묘에서 점차 백제 묘제로 대체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의 고분은 남한강과 금강(미호천)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남한강 일대에

26) 성경용, 2012. 「曾坪 二聖山城 出土 土器樣相과 그 性格」 『호서고고학』 27(호서고고학회), 56쪽.

2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淸州 井北洞土城Ⅰ』; 2002. 『淸州 井北洞土城Ⅱ』.

서 확인되는 고분으로는 충주의 금릉동·문성리·신효리유적과 제천의 양평리·도화리유적 등이 있다.

충주 금릉동유적²⁸⁾은 149기의 토광묘와 1기의 옹관묘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합장묘가 13기이다. 대체로 목관묘가 일반적이며, 목곽묘는 7기에 불과하다. 목곽묘 7기 중 1기는 목곽 내 목관을 시설한 것이며, 6기는 목곽만 시설된 것으로 묘광벽 혹은 양 장벽을 따라 기둥구덩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목곽만을 시설한 목곽묘는 중서부지역의 마한지역보다는 영남지역의 목곽묘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²⁹⁾ 마형대구를 비롯해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의 조합 등 부장유물의 양상은 중서부지역 마한의 분묘유적과 유사성이 높다. 3세기 전반에서 4세기 전반의 이른 시기까지로 편년되고 있다.³⁰⁾

충주 문성리유적³¹⁾은 토광묘 70기와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주구토광묘가 21기이며, 합장묘가 3기이다. 충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구토광묘가 확인된 유적이다. 주구토광묘와 주구가 확인되지 않은 토광묘 그리고 합장묘는 각각의 묘제에 따라 묘역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하고 있다. 부장유물은 마형대구를 비롯해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의 조합을 이루고 있어 금릉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중서부지역 마한의 분묘유적과 유사성이 높다. 이 밖에 철제 마구류, 무기류, 농공구류, 구슬 등이 확인되었다.

충주 신효리유적³²⁾은 9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목관을 시설한 목관묘가 대부분이다. 부장유물은 금릉동이나 문성리유적처럼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천 양평리 적석총³³⁾은 2기가 확인되었다. 1호분은 강에서 150m

28)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7. 『忠州 金陵洞遺蹟』.

29) 박중근, 2011. 「中原 古墳遺蹟의 검토」 『선사와 고대』 34(한국고대학회), 134쪽.

30)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7. 위 책, 343~344쪽.

3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화석리·문성리 유적』.

3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발굴(시굴)조사(제4구간 5·6공구 지도위원회 자료집)」.

33) 배기동, 1984. 「堤原 陽坪里 A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 『忠州댐 水沒地

떨어진 곳에 있으며, 2호분은 충적대지와 강이 접하는 자연사구 위에 축조되어 있다. 1호분의 증석부에서 고려시대 매장시설 7기만 확인되고 그 이전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호분에서는 돌 사이에서 철제 환두도와 타날문토기·관옥 등이 수습되었으며, F-IV호 매장주체부에서 銅鈴·철부·타날문호 등이 출토되었다. F-V호에서 완형의 승석문 토기 1점이 파괴된 채 발견되었다.

제천 도화리 적석총³⁴⁾은 남한강을 따라 좁은 폭으로 발달하여 있는 충적지의 자연 사구 위에 축조되어 있다. 인근에서 조사된 양평리 것과 같이 적석총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시설은 상부에서 석곽 1기가 확인되었는데, 약간의 뼈와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분구조사과정에서 격자+횡침선이 있는 단경호와 함께 철모·유견철부·유공철착 등의 철기, 靑銅環·청동팔찌·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적석총 중에 제천 양평리 적석총은 2기 모두 다장묘로서 추가장에 따른 시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별 고분의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2호분 F-V 출토 승석문토기는 구형이나 편구형이 아니라 어깨가 형성되고 丸低外反口緣을 가진 점에서 3세기 말까지 소급하기 어렵고 4세기 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³⁵⁾

중원지역의 남한강 일대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고분의 조영이 3세기~4세기 초반에 국한되며, 한성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고분의 조성이 4세기 초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무덤이 조영되기까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양상을 통해 판단하건데, 충주 금릉

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I(충북대학교 박물관).

34) 최몽룡 외, 1984. 「堤原 桃花里地區 遺蹟發掘調查 報告」『忠州담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I(충북대학교 박물관).

35) 임영진,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선사와 고대』19(한국고대학회), 91쪽.

동과 문성리의 대규모 고분을 조영했던 마한 계통의 세력집단이 장미산성이나 탄금대토성 등의 성곽이 출현하는 단계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점은 4세기 대에 들어서 남한강 일원에서 세력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백제가 남한강 일대에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중원지역의 금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고분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진천·증평·청원·청주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진천 신월리유적³⁶⁾에서 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 2기와 주거지 9기·수혈유구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구토광묘 2기는 유적 북쪽에 상호 12m 거리를 두고 있으며, 주거군이 무덤에서 남쪽으로 약 50m 이상 떨어져 있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호묘는 크기로 보아 목곽의 가능성이 있으나 곽내 부장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광 충전토 내에서 적갈색연질의 무문과 타날문 토기편과 및 철부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2호묘는 주구와 묘광의 북·동쪽 부분이 파괴된 상태로서 관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광 내에서 토기편만 출토되었다. 토기로 보아 3세기 무렵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평 증천리유적³⁷⁾은 주구토광묘 1기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1호묘는 청당동형의 주구가 있으며, 묘광 면적이 7.65㎡로 상당히 큰 편이지만 유물은 타날문토기편만 수습되었다. 관곽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3~4세기 무렵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 송대리·상평리유적³⁸⁾은 원삼국시대 토광묘 101기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6기가 합장묘이다. 주구토광묘는 10기가 확인되었다. 관곽 흔적은 모두 37기에서 확인되었으며, 목관은 6기, 목곽 31기로 목곽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중 관곽이 모두 갖춰진 것은 12기 정도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관이 없이 곽 내 한쪽에 토기를 부장한 형식이다. 부장 토기의 기종 조합은 매우 단순한 편으로서, 단경호와 경질

3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鎭川 新月里遺蹟』.

37)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曾坪 曾川里遺蹟』.

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淸原 梧倉遺蹟(I)』; 2000. 『淸原 梧倉遺蹟(IV)』.

무문 및 타날문 심발형토기가 조합을 이루며 옹도 20여 기에서 출토되어 다른 유적보다 다수 부장된 편이다. 이 밖에 마형대구를 비롯해 철제 마구류, 무기류, 농공구류 등이 같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3세기 중엽 무렵 조영이 시작되어 4세기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주 송절동고분³⁹⁾은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16기가 조사되었다. 그 중 주구토광묘가 6기이며, 합장묘는 3기가 확인되었다. 조사 면적은 좁지만 1992년과 1993년 조사지점이 동서로 약 800m 떨어져 있고, 이 일대에 토기편이 산재하고 있어 대규모 분묘군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17기로, 목관이 4기, 목곽이 13기로 목곽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청원 송대리유적과 유사하다. 부장유물은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조합을 이루며, 이 밖에 철제 마구류, 무기류, 농공류 등이 확인되었다. 송절동고분군은 원저단경호의 기형으로 볼 때 3세기 대를 중심으로 일부 4세기까지 축조 되었으며, 미호천 남안을 대표하는 원삼국시대 집단의 묘지로 보인다.

청주 산남동 원흥리유적⁴⁰⁾은 원삼국시대 토광묘 9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주구토광묘가 2기이며, 목곽은 1기에서만 확인되었다. 격자타날문 심발형토기와 연질의 원저단경호·직구호편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로 보아 3~4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산남동 42-6번지 및 아래탑골Ⅱ유적⁴¹⁾은 각기 지점을 달리하지만 지형상 동일한 유적군으로 추정된다. 산남동 42-6번지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12기가 조사되었다. 부장유물은 원저단경호와 옹이 확인되었고, 마형대구, 철제 마구류, 무기류,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3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清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 調査報告書』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4. 『清州 松節洞 古墳群』; 백제문화개발연구원·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清州 山南洞 墳墓遺蹟』; 2006. 『清州 山南洞 遺蹟』.

4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청주 산남동 분묘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清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아래탑골Ⅱ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5기가 확인되었다. 묘광의 대부분이 삭평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호 묘에서 대형목곽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부장유물로는 원저단경호, 옹 등이 출토되었다. 3세기 무렵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미평동 195-1번지유적⁴²⁾은 원삼국시대 토광묘 7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1기가 주구토광묘이다. 목관은 주구토광묘를 비롯해 6기에서 확인되었다. 부장유물은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중심이 된다. 철제 무기류, 농공구 등이 같이 출토되었다.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봉명동유적⁴³⁾은 총 240기의 원삼국시대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단장묘가 229기이며, 합장묘가 11기이다. 무덤들은 능선의 평탄부와 사면을 따라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무덤 간의 중복관계가 거의 없다. 매장주체부는 목관만 안치된 목관묘와 목관 외측에 목곽을 시설한 목곽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목관묘이다. 묘광 내의 매장주체부는 한쪽으로 치우쳐 안치하고, 다른 한쪽의 남은 공간을 유물부장부로 이용하고 있다.

부장유물은 중서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광묘 유적의 토기 조합상과 동일하게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기본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우각형 파수가 붙은 평저파수부배·주구형토기·반·삼각투창대부·직구호·대부호·경부에 대칭으로 2개의 작은 원공이 뚫어진 원저 혹은 평저직구호·부형토기 등 새로운 기종들이 출현하여 기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속기로는 마형대구를 비롯해 철제 무기류(환두대도, 대도), 마구류(재갈, 등자), 농공구류(검, 부, 도자 등)가 같이 출토되었다. 봉명동고분군은 중심연대가 4세기 대인 원삼국시대~한성백제 초기의 고분군으로 중서부 내륙지역의 원삼국~백제 초기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원삼국시대에서 백제로의 전환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淸州 米坪洞 195-1番地 遺蹟』.

43)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 『淸州 鳳鳴洞遺蹟Ⅱ』.

청주 신봉동고분군⁴⁴⁾은 6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329기의 토광묘와 석실묘 3기, 옹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사면 하단부터 주로 능선 정상부를 따라 조영되었는데, 해발 60~74m 사이에 가장 집중되어 1m 이내의 근거리 또는 중복된 것도 다수 확인된다. 해발 76~90m 사이는 상부로 가면서 분포밀도가 점차 낮아지는 대신 부장품이 풍부하게 매납된 대형 토광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목곽을 포함한 대형분들은 주로 구릉 상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장품 양도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어 구릉 상부가 주로 상위 계층의 묘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실 3기는 해발 88~95m 사이의 능선 정상 가까운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심발형토기·단경호·직구호·난형호·유견호·병·개배·파배 등 다양한 기종의 토기류와 등자·재갈 등의 철제 마구류, 삼엽환두대도·소환두대도·철모·철촉·갑주 등의 무기류, 농공구류 등의 철기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신봉동고분군의 편년은 다양한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4세기 후반~5세기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⁴⁵⁾

청주 가경동 4지구유적⁴⁶⁾은 백제토광묘 1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광구장경호와 파배·병·광구소호·주구부 토기와 철부·철검·철창·도자 등의 공구류 등이 부분적으로 부장되어 있다. 8호에서는 삼엽환두대도와 철모, 재갈이 공반되었다. 대체로 4세기 말~5세기 중엽 사이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원 주성리유적⁴⁷⁾에서 청원 송대리유적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44)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90年度 調査』; 1995.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1996.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1995年度 調査』; 2002.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發掘分 調査報告書』; 2005.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3年度 調査』.

45) 박순말, 1998.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경용,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 『백제연구』 28(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성남, 2001.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細部編年」 『백제연구』 33(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2. 『清州 佳景4地區 遺蹟』.

위치한다. 백제 토광묘 15기와 석실묘 2기, 석곽묘 2기, 적석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백제 토광묘 중 목곽이 확인된 유구는 4기이다. 부장 유물은 대체로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조합을 이루며, 이 밖에 광구장경호, 난형호 파배, 무늬식 뚜껑, 병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 마구류와 무기류, 농공구류 등이 같이 출토되었다. 석실에서는 금제 이식 1쌍이 출토되었으며, 이 밖에 광구호, 철제 무기류, 마구류, 농공구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군은 4세기 후반 무렵 토광묘부터 시작하여 5세기 중후반인 한성백제기 말까지 석곽과 석실 등이 차례로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호 석실은 백제 때 축조되어 이용되다가, 이 지역이 신라화된 후 동일한 축조집단이 신라문물을 받아들여 계속 사용한 예로 볼 수 있다.

청주 명암동유적⁴⁸⁾은 백제 토광묘 6기와 석곽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 2기는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다. 대부분 삭평되어 매장주체부를 알 수 있는 것은 2기에 불과하다. 부장유물로는 광구장경호와 심발형토기·난형호·유건호·소호 등의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철도자와 철촉 일부가 출토되었다. 석곽에서는 유건호와 병·격자타날 소형 심발형토기·개배형토기 등과 함께 철검·철촉·도자·砥石 등이 출토되었다. 4세기 말~5세기 중엽대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원지역의 금강(미호천) 일원에서 확인되는 고분의 특징은 3~4세기 전반까지 마한계 등 재지속성의 고분들이 조영되다가 4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조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한강 일대의 고분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4세기를 중심으로 이 일대의 재지세력이 세력변동으로 인해 조영이 멈춘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의 물질문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충주 금릉동, 문성리, 청원 송대리·상평리, 청주 봉명동 등의 대단위 고분군들의 조영이 멈추고,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청원 주성리, 청주 명암동, 가경 4지구 등의 고분군처럼 10~20기 내외의 소단위 고분군이 조영되

4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淸原 主城里遺蹟』.

48) 국립청주박물관, 2000. 『淸州 明岩洞 遺蹟 I』.

는 것은 재지세력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제가 중원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는 마한계 고분 조영이 쇠퇴하는 4세기 전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⁴⁹⁾ 처음 교섭하는 단계는 문헌상의 내용 검토했을 때 그 보다 앞선 3세기 후반 이후로 생각된다.⁵⁰⁾

III. 진출 성격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요 거

-
- 49) 청주 봉명동유적의 조영집단은 큰 변화없이 대형목곽묘가 조영되고 있는데, 이는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편입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반독립적으로 존속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중균, 2011. 『금강유역 문화의 지역성과 정치체의 존재양태 - 國의 추출과 성장·소멸 -』 『금강유역 마한 문화의 지역성』 제23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호서고고학회), 202쪽.).
- 50) 백제 토기의 경우 위세품과는 달리 국가 통치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매개가 아니므로 지역간 양식적 통합의 속도가 지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삼국시대 토기 양식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초적인 하부 생산체계가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중앙이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높은 지역은 그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성정용, 2001. 「4~5世紀 百濟의 地方支配」 『한국고대사연구』 24(한국고대사학회), 96~97쪽.). 양기석은 송절동 고분 단계에 백제가 중서부지역에 진출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는 3세기 후엽으로 보았다. 이 때 백제는 재지세력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이를 백제 세력권으로 흡수하였으며, 봉명동과 신봉동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차 영역화 했을 것으로 보았다(양기석, 2005. 앞 글, 225~232쪽.). 김영관은 청주지역이 이르면 3세기 후반부터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여 4세기 중엽 이후에는 완전히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3세기 이전에는 송절동 고분과 같은 유적으로 보아 마한의 재지세력이 청주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후 봉명동의 토광묘 유적에서와 같이 백제 중앙의 영향을 점차 받아 백제의 세력권으로 편제되는 시기를 거쳐, 4세기 후반 이후 5세기에는 신봉동 고분으로 대표되는 청주지역의 백제고분이 조영되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백제의 영역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김영관,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82(백산학회), 33~35쪽.).

점지역의 유적간 비교를 통해서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이 주변의 거점 지역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백제의 남쪽에 해당되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안 청당동유적의 조영집단은 2~3세기 경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세력 중에 하나였다. 이 시기 동일 분묘 내부에서도 계층화가 확인되고 있으나, 4세기 이후에 소멸한다. 이후 천안지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용원리 조영집단이 등장하는데, 이 유적은 선행하는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지 않고 주구가 이탈한 단순토광묘, 석곽묘가 축조되다가 5세기에 석실묘가 등장한다. 이 유적에서 금동관모, 금동이식, 중국제 자기류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중앙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천안 용원리유적을 비롯한 4~5세기 전통적으로 재지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각종 위세품을 통해서 반독립적 위치에서 점차 백제 중앙의 정치적 예속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완전히 편입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밖에 충청서해안지역과 금강 하류지역에서는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가 5세기까지 지속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완주 상운리유적의 조영집단은 늦게까지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마한 분묘의 분포와 소멸시기는 백제의 성장과 매우 밀접하다고 설명되어 왔다. 즉 중서부지역의 마한 분묘권의 분포와 소멸과정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곡교천, 미호천, 갑천, 정안천 일대의 마한계 묘제는 3세기 중엽부터 4세기를 전후하여 백제의 토광묘와 석곽묘로 거의 완벽하게 대체된다. 이에 비해 서해안 일대는 4세기 중후반까지도 마한의 전통묘제가 지속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백제의 南征이 충청내륙지역과 서해안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루트를 따라 이루어졌고, 두 지역권에서의 진출 양상

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지역정치체에 대한 정치적 전략도 상이했음을 시사한다.⁵¹⁾

또한 충청내륙지역에서도 중원지역인 충북일대와 마한의 중심세력권으로 추정되는 천안 일원에서도 상이점이 확인된다.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모습에서 차이점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재의 존재와 고분군의 규모이다. 마한 목지국으로 추정되는 천안의 일대의 고분군 중에서 백제의 물질문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고분군으로 용원리유적을 들 수 있다. 용원리고분군에서는 재지세력의 위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금동관모를 비롯해 중국제자가 확인되며, 서산 부장리·공주 수촌리·연기 나성리 등 주변 주요 거점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당시 재지세력의 높은 위상을 대변하며, 해당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반독립적으로 존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원지역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인 충주나 청주 일대의 고분군에서는 백제의 영향력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재지세력의 위계를 추정할 만한 위신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2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원지역 일대의 재지세력이 주변의 다른 거점지역의 재지세력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해 백제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원 일대의 고분군의 규모나 출토되는 유물 양상을 살펴보면 주변 거점지역의 그것에 비해 뒤떨어지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전략자원인 철기의 부장양상을 놓고 봤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백제의 진출과 재지세력의 해체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다. 백제가 진출하는 시점의 고분 조영이 기존의 대단위에서 소단위로 전환되거나, 백제 고분의 조영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기존 마한계 고분의 조영이 단절되는 모습은 재지세력

51) 김승옥,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한국상고사학회), 112쪽.

의 해체가 가속화되었음을 추정케 한다.⁵²⁾ 이는 이시기 중원지역에서 백제 성곽의 축조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밀접하며, 백제의 직접 지배가 실현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⁵³⁾

그렇다면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에 있어 시기와 강도가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 이는 백제가 중원지역에 진출하는 4세기 대의 주요 유적의 성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의 주요 유적 중에 특히 대단위 생산유적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철유적이 주목된다.

백제의 제철유적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진천·청원·충주 일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유적들의 운영시기는 모두 4세기 대로 이해되고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 중앙의 관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방세력에 의해 철이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철기의 경우 함유 원소의 성분을 분석하여 산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유적의 입지, 성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D. 가을 9월 丁卯朔 丙子. 久氐 등이 千熊長彦을 따라왔다.
이 때에 七支刀⁵⁴⁾ 한 자루와 七子鏡 한 면을 비롯하여 여러

52) 고분의 규모는 조영기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나, 백제의 영향력이 확인되는 4세기 대 고분군의 조영기간이 대체로 한 세기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신봉동고분군의 경우 대단위 고분군이지만 고분의 밀집도나 철제 마구·무기류의 비중이 높아 일찍이 군사집단 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분군과는 성격을 달리 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직접지배단계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관 파견이 전제되어야 한다. 백제 초기 신라와의 전투기사에서 성의 주둔군이 확인되는데, 그 수장이 백제 중앙에서 파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중앙 인물이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위신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째, 歸葬으로 인해 연고지나 수도 일대에 무덤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해당 지역에 무덤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에 최상위 제지세력에게 분여되었던 금동관모 같은 위신제 대신 이석 등의 장신구나 중국계 자기 등 금동관모보다 격이 낮은 위신제가 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54) 일본 奈良縣 天理市에 있는 石上神宮에 봉안되어 있는 七支刀와 같은 것

가지의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그리고 “臣의 나라 서쪽에 강이 있는데, 그 水源은 谷那鐵山입니다. 너무 멀어서 7일 동안 가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다가 문득 그 산의 철을 얻으니 영원토록 聖朝에 바치고자 합니다.”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52年)

위의 내용은 백제의 철 생산지와 관련해서 ‘谷那鐵山’이 언급되고 있다. 곡나철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⁵⁵⁾ 백제 중앙으로부터 7일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백제의 철 생산지가 백제 중앙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4세기 백제의 주요 제철유적

지역	유적	유구	출토유물	비고
금강 (미호천)	진천 석장리 ⁵⁶⁾	製鍊爐, 精鍊爐 鎔解爐, 鍛冶爐	자철광석, 鐵滓, 송풍관	
	진천 구산리 ⁵⁷⁾	製鍊爐	자철광석, 鐵滓, 송풍관	
	청원 연제리 ⁵⁸⁾	製鍊爐	鐵滓	
	청주 산남동 ⁵⁹⁾	폐기장	鐵滓, 송풍관, 노벽편, 유출재	
남한강	충주 칠금동 ⁶⁰⁾	精鍊爐	철광석, 鐵滓, 송풍관	
	충주 탄금대토성 ⁶¹⁾	鍛冶爐	鐵滓, 송풍관	鐵錠 40枚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5) 谷那는 현 黃海道 谷山郡(臨津江이나 禮成江의 상류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鮎貝房之進, 1937. 『雜攷』7-上(朝鮮印刷株式會社), 163쪽.)와 전남 谷城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社), 63쪽.), 충주로 보는 견해(窪田藏郎, 1987. 『改訂 鐵の考古學』(雄山閣), 51~53쪽.)가 있다.

56) 국립청주박물관, 2004.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57)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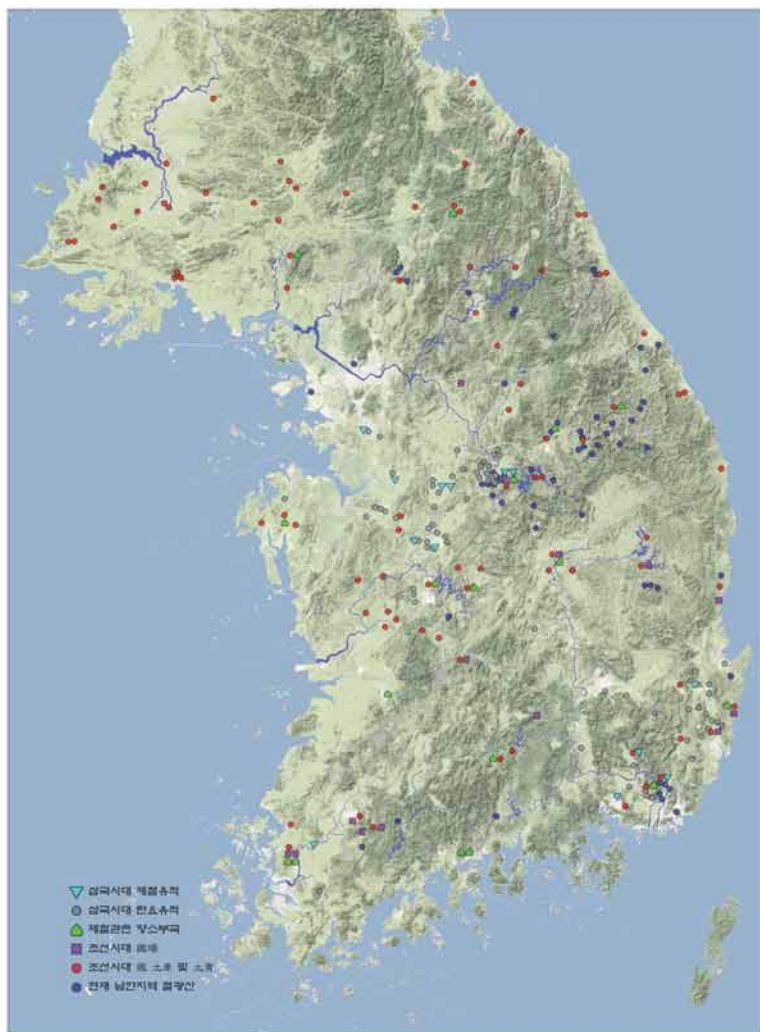


그림 3. 고대 제철유적 및 목탄요·주요 철산지 분포도

- 5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清原 蓮提里遺蹟』.
 5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清州 山南洞 33-7番地 遺蹟」 『清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60)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6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忠州 彈琴臺 土城 I』.

충주지역은 서울에서 배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7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⁶²⁾ 진천·청주지역도 백제 중앙에서 볼 때 매우 먼 거리에 해당된다. 이는 꼭나철산 기사의 내용처럼 백제의 철 생산지가 백제 중앙에서 매우 먼 거리에 위치했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4세기 대 충북 일원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지의 조영 주체에 대해서 백제 중앙 직속의 철 생산지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근거로는 지방 세력이 운영하던 철산지라고 하기에는 조업량이 많아 유적의 범위가 넓고, 진천 석장리유적의 경우 인근의 산수리·삼용리 가마의 예를 통해 백제의 생산과 유통에 매우 긴요한 일종의 전략적 콤비나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 중앙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⁶³⁾

<그림 3>은 삼국시대 주요 제철유적과 목탄요, 고려·조선시대 제철관련 시설 및 철산지, 그리고 현재 남한지역의 철광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⁶⁴⁾ 고대 제철유적이 입지하는 곳은 대체로 고려, 조선을

62) 한말 현지인이 증언한 기록은 소강시 서울을 기준으로 양근 3일, 여주 5일, 충주 7일, 청풍 10일, 단양 13일, 영춘 17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I.B. Bishop의 기록에 의하면 서울을 출발하여 2일에 양근, 4일에 이포, 5일 여주, 7일 충주, 8일 청풍, 11일 단양, 19일 영춘에 이른다고 하였다. 1930년대 이영이 지은 《충주발전사》에서는 “영월부터 충주에 이르는 사이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항하는데 여울이 49개소나 있다. 충주로부터 하류까지는 결빙기나 장마철을 제하고는 매일 항행한다. 충주 탄금대로부터 서울 용산까지 항행거리는 약 315리로서 여름철 물이 많을 때는 하향이 12시간 내지 15시간, 상향은 5일 내지는 7일간이 소요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서영일, 2008, 「교통로의 확보와 운송」 『한성백제사 4 - 대외관계와 문물교류』(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64~65쪽).

63) 토기의 생산과 유통 범위는 철기와는 달리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이해해야 한다(권오영·김장석, 2006, 「백제 한성양식 토기의 유통망 분석」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학연문화사), 110~111쪽.)

64) 분포도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제철관련 향소부곡(서성호, 1997,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 鐵場(『世宗實錄地理志』), 조선시대 土産·土貢(『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현재 남한지역 철광산(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분포

거처 현재의 철산지와 대체로 일치하거나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제철유적의 분포는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떨어져 있다. 물론 당시 근처의 노천광이 사용되다 폐기되었다거나, 사철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화성 기안리를 비롯하여 진천 석장리 등에서 철광석이 확인되고 있고, 진천 구산리유적에서는 철광석을 파쇄하는데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절구공이와 파쇄된 형태의 철광석이 있어 사철보다는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광석을 채굴해서 조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산지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이루어진 것은 교통로와 연료 산지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백제 중앙의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⁶⁵⁾

또한 철의 생산 입지는 일반적으로 원료인 철광석 산지보다는 운반 비용이 더 드는 연료 산지의 비중이 큰 경향이 있으므로,⁶⁶⁾ 연료 산지와와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 철 생산 유적 주변에 연료와 관련있는 목탄요가 집중 분포하고 있어, 제철 유적의 입지 선정에 원료를 비롯하여 연료의 비중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차 공정인 철 생산 유적의 입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대에는 철산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거나,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

도)). 문헌상에 세부지명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그 읍의 중심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행정구역의 지역범위가 넓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다.

- 65) 철생산 유적의 경우 철광석의 원료 및 연료의 확보, 생산물의 이동을 위한 교통로의 확보 등이 갖추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철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열과 연기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철 및 철기 생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입지는 철의 생산에 국가적 통제가 있었을 것과 원료 및 연료를 이동하여 통제가 유리한 지역과 재원의 확보가 유리한 곳에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김경호, 2009. 「古代 鐵 生産 技術의 發達」 『제30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문화재보호재단), 33쪽).
- 66) 일본의 경우 '砂鐵七里炭三里'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葉賀七三南, 1986. 『考古學と金屬生産』).

다.⁶⁷⁾ 이처럼 철 생산은 산지와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충주 일원의 제철 유적은 철광석 산지와 산악지역에 가까이 있어 연료인 목탄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여 운반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철 생산에 매우 적합한 입지에 속하지만, 대규모로 철을 생산했던 진천 일원의 석장리유적과 구산리유적의 경우 철광석 산지와 상당 부분 떨어져 있으며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입지 선정에 있어 백제 중앙에서 제철유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대규모 제철유적 일대에 재지 세력의 위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제는 3~4세기에 해당되는 고이왕~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고이왕대인 3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 중부지역은 백제에 의한 세력 재편이 진행되었고, 4세기 초 낙랑·대방이 소멸한 뒤 고구려와의 대대적인 전투를 통해 고구려를 압박하게 된다. 이처럼 백제는 3~4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 세력을 복속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투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전략물자인 철의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이해된다.⁶⁸⁾ 이를 위해 백제가 충주 일원의 대규모 철 산지를 확보하고, 진천 일대의 대규모 철 생산지를 갖추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67) 반면 고려시대에는 원료가 풍부한 지역에 鐵所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수운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영은 조선 초기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중기 이후 철 생산 유적은 기존과는 다른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산지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이나 교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해당된다(조록주, 2010. 「중부내륙지역 백제 철 생산 유적의 성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쪽).

68) 이는 백제의 대고구려전에서 나타나는 병력에서도 확인된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동원했던 병력이 3만 명인데, 이는 기존의 병력 동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제무기의 보급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며, 이는 4세기 대의 대규모 철 생산지 확보를 통해서 가능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가 중원지역에 진출하는 시기에 대해서 문헌과 고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함으로써 맺음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원지역은 요충지로서 고대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곳이다.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중원지역에 진출하였으며, 이는 문헌자료에서 일찍부터 확인된다. 백제의 남쪽에 해당되는 주요 공략지역이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熊川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했을 때, 웅천의 위치는 공주 일대의 금강보다 상류지역인 청주 일대로 추정된다.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성곽의 축조와 고분문화의 변화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백제 성곽의 분포를 살펴보면 4세기 이후 경기지역의 동남부와 남한강 일대, 미호천 등 중원지역 일대에서 성곽이 밀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부 내륙교통로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곽의 축조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일대에 대한 백제의 진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분군의 특징은 3~4세기 전반까지 마한계 등 재지속성의 고분들이 조영되다가 대체로 4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조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4세기를 중심으로 이 일대의 재지세력이 세력변동으로 인해 조영이 멈춘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의 물질문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충주 금릉동, 문성리, 청원 송대리·상평리, 청주 봉명동 등의 대단위 고분군들의 조영이 멈추고,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청원 주성리, 청주 명암동, 가정 4지구 등의 고분군처럼 소단위로 조영되는 것은 재지세력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백제가 중원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는 마한계 고분 조영이 쇠퇴하는 4세기 전반으로 이해되며, 처음 교섭하는 단계는 이보다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중원지역 주변의 거점지역과는 상이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신재이다. 위신재는 백제의 영향력이 지방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재지세력의 위계를 추정케 한다. 천안 용원리·서산 부장리·공주 수촌리·연기 나성리 등에서 위신재인 금동관모가 출토되었으나 중원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진출과 더불어 재지세력이 신속하게 해체되고 백제의 직접지배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 중원지역에서 백제 성곽의 축조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원지역에 대한 백제의 진출은 시기 강도에 있어 주변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그 이유로는 중원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략자원인 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략자원인 철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백제 중앙에서 중원지역을 장악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의 거점지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논문접수:2012.10.30, 심사시작:2012.11.22, 심사완료:2012.11.30.]

주제어 : 중원지역, 한성백제, 웅천, 성곽, 고분, 제철유적

【參考文獻】

1. 사료

『三國史記』

『高麗史』

『日本書紀』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2. 논저

권오영·김장식, 2006. 「백제 한성양식 토기의 유통망 분석」 『백제 생산 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김경호, 2009. 「古代 鐵 生産 技術의 發達」 『제30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성남, 2001.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細部編年」 『백제연구』 33(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순배, 2009. 「하천 지명의 영역과 영역화」 『지명학』 15(한국지명학회).

김승옥,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김영관,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82 (백산학회).

김현길, 1995. 「中原地域의 歷史的 背景」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박순발, 1998.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균, 2011. 「금강유역 문화의 지역성과 정치체의 존재양태 - 國의 추출과 성장·소멸 -」 『금강유역 마한 문화의 지역성』 제23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서고고학회)
- 박중균, 2011. 「中原 古墳遺蹟의 검토」 『선사와 고대』 34 (한국고대학회).
- 서성호, 1997.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일, 2008. 「교통로의 확보와 운송」 『한성백제사 4 -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성정용,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 『백제연구』 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성정용, 2001. 「4~5世紀 百濟의 地方支配」 『한국고대사연구』 24 (한국고대사학회).
- 성정용, 2012. 「曾坪 二聖山城 出土 土器樣相과 그 性格」 『호서고고학』 27 (호서고고학회).
- 신형식, 1996.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중원문화권의 새로운 인식」 『중원문화 국제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양기석, 2005. 「漢城百濟의 淸州地域 支配」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강석, 2006. 「漢城 百濟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 이종욱, 1982.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 임영진, 2003. 「積石塚으로 본 百濟 建國集團의 南下過程」 『선사와 고대』 19 (한국고대학회).
- 장준식, 2011. 「생산유적으로 본 중원」 『중원의 생산유적』 (충주대학교 박물관).
- 조록주, 2010. 「중부내륙지역 백제 철 생산 유적의 성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관우,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한국사학회).

천관우,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일지사).

3. 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 2000. 『淸州 明岩洞 遺蹟 I』.

국립청주박물관, 2004.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이천 설봉산성4·5·6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이천 설성산성 4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 調査報告書』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배기동, 1984. 『堤原 陽坪里 A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 『忠州댐 水沒 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考古·古墳分野 I (충북대학교 박물관).

백제문화개발연구원·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鎭川 新月里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淸州 山南洞 墳墓遺蹟』.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淸州 山南洞 遺蹟』.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淸原 蓮提里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曾坪 曾川里 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忠州 薔薇山城 -1차 발굴조사 보고서-』.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충주 칠금동 재철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발굴(시굴)조사(제4구간 5·6공구 지도위원회 자료집)」.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陰城 望夷山城 I』.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淸州 山南洞 33-7番地 遺蹟」 『淸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淸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忠州 彈琴臺 土城 I』.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淸州 米坪洞 195-1番地 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曾坪 二城山城 I』.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화석리·문성리 유적』.
- 최몽룡 외, 1984. 「堤原 桃花里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 『忠州담 水沒 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考古·古墳分野 I (충북대학교 박물관).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82年度 調査』.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0.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90年度 調査』.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2. 『中原 薔薇山城』.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4. 『淸州 松館洞 古墳群』.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6.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1995年度 調査』.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2. 『淸州 佳景4地區 遺蹟』.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2.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發掘分 調査報告書』.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 『清州 鳳鳴洞遺蹟Ⅱ』.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3年度 調査』.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7. 『忠州 金陵洞遺蹟』.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清州 井北洞土城Ⅰ』.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清州 井北洞土城Ⅱ』.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薔薇山城』.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6.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1997. 『曾坪 二城山城』.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淸原 梧倉遺蹟(Ⅰ)』.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淸原 梧倉遺蹟(Ⅳ)』.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淸原 主城里遺蹟』.
- 호암미술관, 1995. 『利川 孝養山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ABSTRACT>

Baekjae's Advancement Period to Jungwon and Its
Characteristics

Oh, Uk-jin

Through documents and archeological evidences, this thesis examines when Baekjae advanced to Jungwon.

Jungwon was a key spot in where the ancient Three Kingdoms struggled against one another, and Baekjae occupied there for the first time among them. According to *Samkuksagi*, Jungwon was the center of the southern part of Baekjae where was the central target of conquest, after King Koi's reign.

The archeological evidences such as construction of fortresses and stylistic transitions of sepulchre specifically show the debouchment of Baekjae to Jungwon. After 4th century, the fortresses of Baekjae tended to swarm near Jungwon area, especially in Namhan River area, and Moho River area, and the eastern-southern part of Kyunggi. These evidences signify that Baekjae actively advanced to Jungwon than to other areas.

The fact that the sepulchers of local clans like Mahan were dominantly constructed until 3rd to early 4th century, and the construction stopped since early 4th century is noteworthy characteristics of the sepulcher clusters in Jungwon. It can be understood that Baekjae aggressively advanced to Jungwon in early

4th century when Mahan's sepulchre constitution declined, although the very first contact between them might had been earlier than that.

Baekjae's aggrandizement of its realm to Jungwon is noteworthy in its intensity, not only because it was geologically crucial, but also because iron, the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 of those days, could be attained in there.

Keyword : Jungwon, Hansung Baekje, Ungcheon, Fortress, ancient tomb, Remains of iron manufacture.